

국제수영연맹, 광주세계수영 준비 합격점

경기장 등 현장실사 마쳐... 남북 단일팀 구성 적극 지원 약속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과정을 둘러본 국제수영연맹(이하 FINA) 대표단이 '합격점'을 줬다.

지난 31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광주를 방문한 FINA 대표단은 분야별 실무회의와 경기장 등 현장 실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대회 개막을 8개월여 앞두고 준비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조직위와 호흡을 맞춰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조직위는 우선 FINA 사무국 분야별 담당자들과 함께 그동안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추진해온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스터스위원회는 전세계 수영동호인들이 내년 대회가 열리는 광주를 직접 찾기 때문에 마스터스 선수들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접근하는 경로와 대회 기간 머무를 숙박시설 등을 논의했다. 또 귀국 후 소속 국가에서 내년 대회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FINA 대표단을 이끈 코넬 마르를 레스쿠 사무총장은 "조직위는 대회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대단히 만족스럽

다"고 말했다.

또 북한선수단 참가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단일팀 구성에 적극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지난 6월 북한선수단의 광주대회 참가 때 북한선수단의 참가 제반 경비를 특별 지원하겠다는 FINA 대표단의 약속에 이어진 것이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FINA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에 머무는 동안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음식, 숙박, 관광 등 많은 즐길거리를 마련해 광주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성공 개최 의지를 밝혔다.

세계수영대회 개최지인 광주에는 11월 중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각국 수영

연맹과 FINA의 20여 개 위원회, 위원단, FINA 파트너와 제휴사가 방문할 계획이다. 또 주관 방송사 등이 참가하는 세계방송사회의가 오는 27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31일 (주)NHN티켓링크·제일F&S(주)와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입장권 및 상품화 부분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나주 시내버스, 광주 달릴 수 있다"

대법원, 광주 운수업체 '노선인가 취소소송' 기각

광주지역 운수업체가 전남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착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나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혁신도시 주민 및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노선인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기존 운행 구간도 9km에서 13.3km로 연장된 것에 불과해 원고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 시내버스(나주교통) 999번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인성고~광주역까지였던 광주 구간을 인성고~백운광장~전남대병원~전남대 후문까지 변경 운행해왔다.

나주시는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 광주 시내 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9곳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3차례 건의했으나 기각되거나 수정·인용됐다.

반면 광주 운수업체는 영업상 불이익을 이유로 늘어선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km에서 5km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광주 시내 구간 나주 시내버스의 정류장 15개소 정착을 골자로 광주와 나주 시 간의 상생협력을 구상해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 지자체의 첨예한 입장차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착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토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두 지자체가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오면 재조정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하는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사용료의 20%를 광주시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현재 30% 환원까지 양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청, 통상비서관 박진규 내정



청와대는 31일 통상비서관에 박진규(52·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로 내정된

박 비서관이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인사했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공직에 들어선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통상정책국장·무역정책관 등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

영산강 죽산보 완전 개방

내년 3월까지

지난해 6월 절반만 열렸던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내년 봄까지 한시적으로 모두 열렸다.

지난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저수위를 해발고도보다 1.35m 낮추는 죽산보 완전 개방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이날 시행했다. 죽산보 완전 개방은 양수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인 내년 3월까지다. 이후에는 취·양수장 대책 등을 고려하고 농민 등과 수위 회복 시기 등을 협의해 개방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자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죽산보를 완전히 개방했다.

4대강 전례로는 이번 조처로 16개 보 가운데 개방 보의 수를 기존 10개에서 13개로 늘렸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수목비엔날레 폐막... 예술성·대중성 두 토끼 잡았다

참신하고 수준높은 작품·다양한 체험행사... 두 달간 29만명 방문 '목표치 훌쩍'



외국인 관람객들이 국제수목비엔날레 제1 전시관(목포문예회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통회화를 주제로 한 국내 첫 국제미술 행사인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수목의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호평 속에 지난 31일 폐막했다.

지난 31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국제수목비엔날레는 지난 10월 1일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개막했다. 15개국 266명의 작가가 참여, 6개 전시관에 312점의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했고, 수목놀이교실 등 체험행사도 선보였다.

그 결과, 두 달 동안 외국인 1만6000여명을 포함해 29만3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당초 목표했던 25만명을 훌

쩍 넘는 흥행 성적을 거뒀다. 관람층도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 초·중·고생, 대학생, 가족단위 관람객, 외국인 유학생, 동호회 단체 등 다양했다.

수목놀이교실 등 체험행사를 통해 차세대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등 전통수목을 성찰하고 한국수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수목축제의 전범(典範)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번 수목비엔날레의 기대 이상 성공은 남도가 자랑하는 전통수목이 산업화 과정에서 쇠퇴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시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목이 건강할 현대미술로 나가는데 수목비엔날레가 디딤돌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전국의 수목예술인과 미술대학, 예호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한 몫 했다. 수목VR, 수목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학생들에게 수목의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수목의 정명(영문 SUMUK) 운동, 앞치마 미술제, 국제레지던시, 수목퍼포먼스 등도 예술성과 대중성을 향한 몸부림으로 기억됐다. 다만, 북한 작가 초대와 작품 전시 무산, 전시장이 목포·진도에 분산돼 관람객 불편, 노후된 전시시설, 지역의 젊은 작가군 부족, 전시관 주변 생활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수목비엔날레의 해결 과제로 남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

1453곳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

을 공유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 투자자 모집 ★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연 30% 이상 수익가능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2019년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과 제테크 성공전략 특강


부동산정책이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1.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이렇게 변한다"

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2. 저금리시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전략

강사 : 김 형 선 박사 (부동산정책 전문)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컨설팅 주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에듀센터원장
- 저서 :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외 다수

일시 | 2018.10월 31일, 11월 1일 (2시~) 특강

참가 방법 | 선착순 100명 사전접수 062-417-7016
특전-굿옥선경매 이용권(7만),강의교재, 사은품 증정

광주 북구 오동동 1110-25번지
(주)G금강2층 강의실(첨단정부청사업)
☎ 010-2636-363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학년도 전남대학교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전형일정	2018. 12. 04.(화) 10:00 ~
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